



## 식생활의 근간 이루는 쌀의 사회문화사 벼재배기원서 쌀소비감소까지 두루 다뤄

— 「쌀과 문화」 펴낸 이춘녕교수

**이 책 그 사람** 현재 세계의 2대 주식으로 꼽히는 쌀과 밀은 각각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기원을 두고, 만여년에 이르는 인류의 농경문화 역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들 중 벼(쌀)는 원래 열대지방 水生草의 하나로 환경적응력이 뛰어나 온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 우리나라에서는 약 3천년전부터 재배를 시작했고 주곡으로 자리잡은 지도 천5백년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듯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벼재배의 역사가 우리의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쌀과 문화」(서울대출판부)를 상재한 李春寧교수(75, 서울대 명예교수)는 “농업이 쌀 생산에 주력해야 하는 산업인 동시에 쌀생산력은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기준이 되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에 미친 영향도 막대했다”고 ‘쌀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우리나라 농학계의 제1세대 학자를 대표하면서 그동안 후진양성은 물론 해방 이후 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역적을 꾸준히 선보인 이교수는 특히, 농학의 대중화를 위한 개론서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련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조선시대 農書 등의 문헌연구까지 반영된 폭넓은 내용은 이교수의 그간의 저술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부각되는데, 이번에 출간한 「쌀과 문화」 역시 우리나라 농학계에서 중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쌀에 관한 여러가지 학문적 논술이 뼈대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쌀의 문화사’를 담고 있다. 즉 벼재배의 기원과 전과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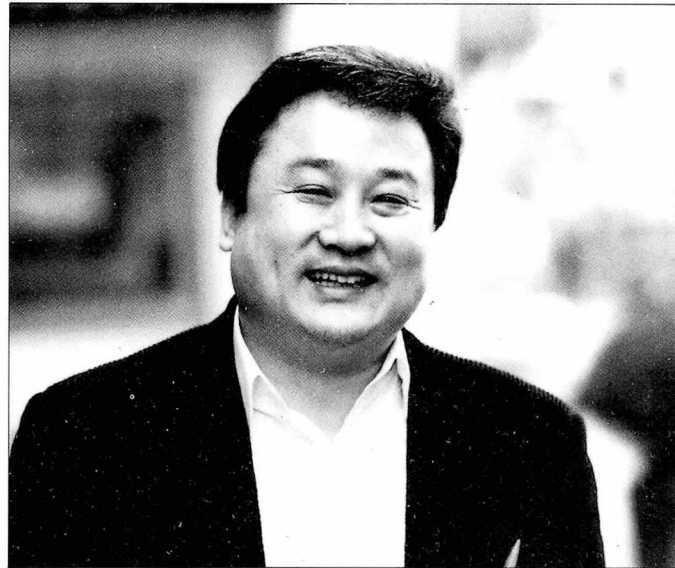
대한 여러 학설과 농사법을 소개하는 한편, 논농사와 밥을 주식으로 하는 食文化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특유의 농사세시풍속과 민속음식들, 심지어 벼짚의 이용방법과 재래 농기구에 대한 설명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외에도 식생활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쌀소비량의 감소추세 등 농업현황에 대한 시사적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농촌인력 부족과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老학자의 우려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이교수에 따르면,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 식량 자족률은 40%정도밖에 안된다는 것. 이제는 생산비를 줄이고 다양한 품질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뒀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의견이다. 또한 벼재배가 홍수조절과 수자원 보존 등 환경보호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 일반인들도 농업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지난 82년 정년퇴임 후 더욱 저술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이교수는 ‘쌀문화’를 주제로 후편을 계속 준비중인데, 앞서 지적한 농업현황 문제가 이번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외국의 민속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학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교수는 국사학계의 거목인 선친 李丙燾박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은 물론 형제들과 자녀 모두가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일가를 이루고 있다. 폭넓은 학계간 연구가 돋보이는 그간의 저술들이 이들에게 빛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이교수는 현재까지도 틈틈히 강단에 서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칠 줄 모르는 집필력은 학계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 정소연 기자



## 재미있는 일화 중심의 본격 바둑野史 조훈현 등 정상급기사들 에피소드 담아

— 「바둑이야기」 펴낸 이광구씨

**이 책 그 사람**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진 다섯가지 동양문화로 마작과 붓글씨, 漢詩, 아편, 그리고 바둑을 든다. 그 가운데 오천년 동양정신의 精華로 불리며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바둑은 사색의 여백과 철학적 깊이를 가지면서도 승부의 치열함도 갖추고 있어 놀이 가운데서도 으뜸에 놓인다.

특히 바둑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흑과 백이 벌이는 승부의 세계는 서부의 활극과는 또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아마도 속임수가 통하지 않고 우연에 좌우되지 않으며 결과 앞에 깨끗이 승복하는 흑백의 대비만큼이나 선명한 바둑 특유의 개성 때문일 거다. 그래서 바둑을 둘러싼 승부사의 세계는 바둑을 둘 줄 모르는 문외한들에게도 늘 흥미롭다.

스포츠조선에 ‘바둑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이광구씨(37)씨가 그것을 모아 묶어낸 「이광구의 바둑이야기-첫채권」(범조사)는 기보해설 중심의 일반 바둑책과는 달리 바둑에 얽힌 갖가지의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격적인 바둑 ‘野史’이다. 조훈현, 오창원, 후지사와, 섭위평, 다케미야, 김수영, 이창호 등 일세를 풍미하고 이제는 신화속에 남았거나 또는 지금도 한창 활동중인 프로바둑기사들의 정상에 서기까지의 인생역정이나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대국의 에피소드를 담은 ‘반상의 별들’ 코너라든가, 관철동을 둘러싼 아마추어 바둑의 세계, 또는 내기바둑으로 통하는 지하바둑세계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19로의 뒷골목 풍경’ 코너 등은 이

책을 가장 야사답게 하는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도 세계정상에 우뚝선 프로바둑기사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바둑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바둑인구가 약 700만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광대하게 저변을 이루고 있는 애호가들에게 바둑세계에 관한 궁금중에도 답해주고, 바둑에 관한 정확한 지식도 일러줄 겸해서 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이야기 외에도 바둑알의 앞뒤를 구별하는 법이라든가, 검은알과 흰알의 크기가 차이 나는 이유, 기만원에서 역대를 호가하는 바둑판의 천차만별한 종류, 먹줄에서 옷줄에 이르기까지 가로세로 19선을 긋는 재료의 다양함에 이르기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바둑상식이나 정보가 풍성하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게 흠이지만 바둑만한 취미생활도 없을 것”이라며 어김없이 바둑예찬론을 펴는 그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바둑의 풍취를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덧붙인다. 사실, 바둑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읽기가 따분할 수도 있을 이같은 ‘정보’가 전혀 거부감없이 재미있게 읽히는 것은 이씨의 질박한 글맛에 힘입은 바 크다. 79년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했으나 1년만에 ‘어이없이’ 쫓겨나 본의아니게 밀바닥인생을 겪기도 했던 체험이 사람의 체취가 흥취 묻어나는 바둑세계를 그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최근에는 10년동안 몸담았던 「월간 바둑」편집장 자리를 그만두고, 인사동에 개인사무실을 열고 오로지 바둑에 관한 글쓰기만으로 살고 있다. 그의 바둑실력은 아마 4.5단 수준. — 정혜옥 기자



## 시사칼럼과 시사만화의 흥미로운 만남 독작가 하이칭거의 만평 곁들여 주목

— 「세계시사만평」 펴낸 유지훈교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신문에 실린 한컷의 시사만화를 통한 세상읽기는 효과적일 방안이 된다.

유지훈교수(충북대 정외과, 52)가 펴낸 「세계시사만평」(예진)은 시사만화의 풍자와 함께 정치학자의 예리한 비평을 날장미 아닌 책으로 단번에 읽는 즐거움을 준다. 세계정세와 한국의 정치 사회현실을 조목조목 따진 글에다 독일의 화가이자 시사만화가인 호르스트 하이칭거의 그림을 곁들인 독특한 편집을 보여주는 이 책에는, 독일통일과 공산주의의 몰락 그리고 걸프전쟁과 환경 파괴 문제 등이 주제별로 묶여져 있다.

“73년 유학을 간 독일에서 선이 굵고 대단히 사실적인, 그리고 대상에 구애받지 않는 하이칭거의 시사만화를 보고 매료돼 귀국하면서 1천여장을 가져왔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수집했던 그의 그림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충청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이번에 책으로 엮은 겁니다.”

거침없이 수상을 나체로 풍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독일의 앞선 정치감각이 부럽기도 했다는 유교수는, 비교적 풍자가 자유로워진 지난 88년에 독일을 방문해 하이칭거를 만나 그의 그림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전했고 흔쾌한 승낙을 얻었다. 그곳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화제가돼 뮌헨의 신문에 두번씩 보도가 되기도 했다. 8개의 시사칼럼에 하이칭거의 만화 세컷을 곁들인 이유를 “딱딱한 시사문제를 독자들에게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유교수는,

“비록 몇년전에 그린 만화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과 충분히 들어맞는 하이칭거 그림의 특성도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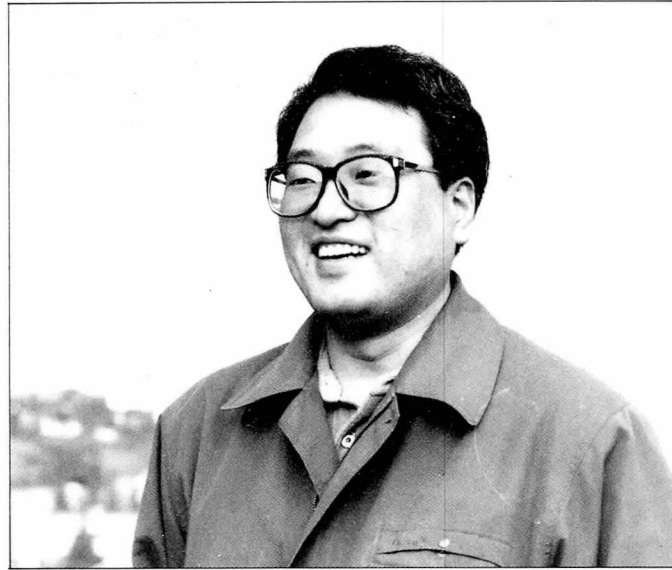
그의 말처럼 세계적인 시사만화가의 빼어난 그림이 돋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글에 맞게 선택하고 가다듬는 유지훈교수의 솜씨 역시 그림과 시사문제를 고루 이해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수서사건과 정치자금에 대한 칼럼에 하이칭거의 ‘매매되는 정당들’ ‘대재벌에 놀아나는 정당들’과 같은 만화를 적절히 삽입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환경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하이칭거의 성향 탓도 있지만 이미 「푸르게 평화롭게」라는 독일 녹색운동에 관련된 책을 출판한 유교수의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통일과정 또한 정치학자인 그가 당연히 흥미를 갖고 있는 문제.

“얼마전 우리도 선거를 치렀지만, 그들의 운동과정과 유세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문제도 성급하고 감정적인 처리보다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 87년에는 ‘독일과 독일인’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기도 했던 유지훈교수는, 독일의 녹색당이 독일 정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저서 준비에 한창이다.

— 최태원 기자



## 가치지향적 역사관 제창한 카의 명저 원서보다 쉬운 번역 목표로 다시 옮겨

— 「역사란 무엇인가」 새로 번역한 이연규교수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때 선배들이 권한 도서목록에는 에드워드 할렛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첫머리에 올라 있던 기억이 있다. 그 책을 읽고서야 암기과목쯤으로 여겼던 역사가 무궁무진한 ‘해석’의 여지를 품은 매력적인 학문임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기억도 자리한다. 아마도 낮은 한자투성의 작은 문고본으로 그 책을 접했던 선배들에 비해 산뜻한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겨진 새 번역본 「역사란 무엇인가」(단우)를 잡게 된 요즘의 새내기들은 행복한 셈이다.

“탐구당서 문고판으로 나온 길현모선생의 번역본은 요즘 대학생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가 많습니다. 80년대에 우리말 새 번역본들이 여럿 나오긴 했지만 단순히 한자음을 한글로 고치거나 오히려 오역투성이란 것을 알게 됐죠. 요즘 한글세대의 감각에 맞으면서 원서에 충실한 새로운 텍스트가 절실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출간된 지 오랜 이 책을 술한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옮겨낸 이연규교수(경성대 사학과, 36)의 말이다. 하지만 E.H 카의 저작이 오늘도 여전히 깊은 의미의 빛을 발하고 있는 점은 이교수가 세월의 너른 간격을 무릅쓴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이 찍어진 1960년대는 역사관의 새로운 탈바꿈이 비롯되던 시기였고, 당시 새로운 역사학의 추세들은 사실상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교수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역사의 객관성에 대한 회의”다. 19세기에 풍미한 역사주의가 사회과학화의 과정을 거쳐 ‘역사의 대중화’를 빚어낸 것도 카의

선견지명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의 역사관도 비판받을 부문이 많죠. 사실 완전한 객관이란 인간의 한계상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아예 철저히 주관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일이 보다 가치지향적인 역사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교수의 생각은 역사와 사회과학과의 연계를 주창한 아날학파의 역사방법론과 맞닿아 있다.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지리·기후와 같은 기본적 요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대중중심의 역사방법론이다. 대학 때부터 몰입한 역사철학에서 ‘역사는 곧 예술’이라는 믿음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가장 미약한 경제사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서양중세사」 「서양근세사」 「농업계급구조의 경제발전-브레너 논쟁」 등 일련의 역서는 그의 학문적 관심의 궤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교수가 번역서에 남다른 부지런을 보이는 원인은 달리 있다. “5시간 꼬박 어렵게 읽을 원서를 1시간에 쉽게 이해할 번역서로 공부한다면 단 천명이 책을 산다 해도 4천시간을 벌고 있는 셈 아니냐”는 것. 그런 점에서 이교수는 우리나라 번역도서의 무책임성과, 번역서를 학술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원문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려면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다”는 나름대로의 진리도 터득했다고. 8년간의 바닷가 생활에 꽤나 정이 든 이교수는 학생들에게 격의없는 태도와 강도높은 수업방식으로도 유명하다.

— 김지원 기자